

1. 유리 너머의 바다 // 2021. 08. 18.

어느새 눈을 뜨니 주변의 풍경은 학교에 속해 있는 아이보리빛 건물로 바뀌어 있었다. 낮이라 확신할 수 있을 만큼 밝고 청량한 날이었으며, 적당히 선선한 날씨에 산들바람이 불어 오는 감촉은 옷이 가리지 않는 몸의 부분을 가볍게 스쳐 지나갔다. 체육시간이 끝난 후, 바람에 땀을 식히며 벽돌로 만들어진 길을 따라 걸었다. 왜인지 알 수 없었으나, 평소와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내자신을 발견했을 땐 같은 반 친구들과 멀어진지 꽤나 지난 후였다. 길 옆의 체육관 건물 유리창에 비친 내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아, 체육 시간이 끝난 내자신의 모습과. 하나로 한껏 올려 묶은, 제법 긴 짙은 갈색빛을 띠는 갈색 머리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 뛰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형클어지고 빠져나온 잔머리들이 걷는 속도에 맞추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다. 하늘의 색보다 옅은 파란색의 체육복 윗도리와 3년째 같은 사이즈를 입어 이젠 조금 작아 보이는 듯한 적갈색의 반바지는 학교 분실물함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물론 다음 날 안 입은 듯이 빨아 그대로 갖다 놓을 생각하기는 했으나, 양심의 가책이 조금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떠올리려 했으나, 쉬는 시간이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부터 졸음의 파도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정확히 짚어 내자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잠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퍼뜩 뇌리에 스친 것은, 내가 이 졸음으로 인해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이 든 또한 이유를 알 수 없었으나, 갑작스럽고 극심한 졸음에 내 몸이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했다. 무언가를 참는 것만은 잘 할 수 있다고, 고통을 참는 것은 별게 아니라고 자부했던 내자신이 겨우 졸음 앞에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지, 허무했다. 그리고 몇 초 뒤, 난 내 머리가 오른쪽으로 기우는 것을 기점으로 내 온 몸이 오른쪽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과 아득함을 차례로 느낀 뒤 시야가 학교의 색들로 채워져 있다 어둠으로 채워지는 것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다.

*

다시 아득했던 정신이 돌아와 눈꺼풀을 들어 올렸을 때 나는 더이상 내 힘으로 서있지 않았다. 누군가의 등에 얼굴을 맞대고 있었으며, 새 운동화를 신은 내 두 발은 땅바닥으로부터 붕 뜬 채 힘없이 노닐고 있었다. 이상함을 감지한 내 눈썹이 찡그려지며 가운데로 모아졌고, 누군가의 어깨 위로 축 늘어져 있던 팔에 힘이 들어갔다. 그 누군가의 어깨를 잡으며 상반신을 등에서 떼었다. 꽤 넓은 등의 소유자는 짧고 검은 머리임을 통해 남자임을 추측했고, 바람이 불긴 했으나 늦여름의 날씨에 사람을 업고 가는 것은 보통 노동이 아니었으나 제법 가볍게 나를 업고 가는 것을 통해 체력이 꽤 강함 또한 추측해냈다. 내 움직임을 감지했는지 ‘누군가’는 멈춰 섰다.

“깻어? 내려 줄까?”

틀림없는 남자 목소리였으며, 내 나이 또래인 듯했지만 그보다 조금 깊은 감이 있었다. 아, 그것보단 따뜻한 목소리라는 인식이 먼저 내 머릿속을 박차고 들어왔다. 누군가 이 광경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보일지 예감하자 얼굴이 화악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으, 응.”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겨우 짜낸 대답이었다. 그것마저도 작아 상대에게 들릴까 걱정이었으나, 상대는 알아들은 듯 무릎을 굽히고 내 다리가 걸쳐져 있던 팔을 풀어 나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한동안 땅을 밟지 못한 내 다리는 후들거렸다. 더군다나 내 기억대로라면 쓰러졌을 터인데, 다리에 힘이 없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지도 몰랐다. 내가 균형을 잡으려 팔을 버둥거리자 그 남자아이는 나를 잡아주려 팔을 뻗다 내가 중심을 잡자 어정쩡한 상태로 만약 내가 쓰러진다면 잡을 것이라는 자세로 서 있었다. 내 시선이 바닥에서 그 남자아이를 향했다. 예상대로 건장한 남자아이였다. 나와 머리 하나는 차이날 법했다. 반전으로 얼굴이 귀엽게 생겼다가나 하는 소설같은 전개는 없었으나, 착하게 생겼다고는 할 수 있는 얼굴이었다. 안경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 모르겠었으나, 차갑거나 사나움이 그려지는 상은 아니었다.

“제가 쓰러져서 업고 가던 거예요...?”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마 양호실로 향하던 길이었을 것이다.

“응. 너가 길 한복판에서 쓰러지길래 그들로 데려가던 중이었는데 꽤 금방 깨네?”

남자아이가 대답했다. 양호실이 아니라 그늘인 것이 조금 의외였으나 더위 때문에 쓰러졌다고 판단했다면 그게 우선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학교 캠퍼스 안에서 교복을 입은 남 녀가 업고 가는 것을 선생님이 목격한다면 이상함을 넘어서 불려갈 만한 일이었으나, 업혀있는 쪽이 의식이 없었으니 이상하게 여긴다 해도 사정이 있겠지-라며 넘길 법한 상황인 것 같았다. 상황 파악은 대충 된 것 같았으나 이 남자아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학교 안에서 마주친 적도 없었으며, 그 다른 어딘가에서 안면식이 있지도 않았다.

“아아, 그렇구나. 그런데 혹시 누구...?”

몇 학년인지 알 길이 없었기에 존댓말로 이어갔다.

“난 11학년. 너도 11학년 류초아 맞지? 아, 난 김성후야”

내 이름과 학년을 어떻게 아는지, 또 우리 학년인데 왜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지가 의문이었으나 이를 물어보기에는 조금 꺼려졌다.

“으응, 어쨌든 고마워. 보답할 테니까 나중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난 가볼게...!”

난 웅얼거리듯이 내뱉은 뒤 뒤돌아 가려 했다.

“잠시만, 지금 쉬는 시간인데, 잠깐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 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서있었다.

“이상하게 들릴 거 아는데,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우리학교 학생인 데다, 우리학년이며, 쓰러진 사람을 그냥 두고 가지 않는 정도면 이상한 곳에 끌고 가진 않을 것 같았고, 결정적으로 친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길도 없는데 쉬는 시간은 꽤나 많이 남아 있었기에 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알고 있는데 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니, 그게 과연 무엇일지 상상이 가지 않았다. 후덥지근한 햇빛 아래 있으니 머리가 다시금 달아오르는 기분이었다.

“일단 쉬는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뭐 좀 먹는 거 어때?”

내 다른 제안으로 우리는 학교 구석즈음에 있는 매점으로 향했다. 그곳은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 마치 산속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는데,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벤치 몇 개가 땅에 심어져 있었다. 사람이 몰릴 만한 시간대는 피했기에 인적은 보이지 않았다. 난 샌드위치를, 성후는 아무것도 사지 않은 채 구석진 벤치에 앉았다. 모르는 사람과 쉽게 친해지지 않는 나인데, 어째서 진도가 이렇게 빨리 나가는지 헛갈렸다. 샌드위치는 평소처럼 맛있었지만, 그렇게 친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앉아 있으니 소화가 그렇게 잘 되지도 않는 듯해 몇 입 먹는둥 마는둥 하다 결국 내려놓았다. 배가 고프지 않을 정도로는 먹은 것에 만족했다.

“너가 보여주고 싶은 곳이 어딘데?”

나는 포장지 비닐을 쓰레기통에 버린 후 손을 털며 물었다.

“가보면 알아.”

성후는 애매모호하게 대답하고는 미소를 지으며 앞장섰다. 나는 아리송한 표정을 지으며 그 뒤를 따르는 수 밖에 없었다. 이상했다. 학교 안에 보여줄 것이 있다니, 아니면 학교 밖인가? 하지만 학교 밖은 교칙상 나갈 수가 없었다. 경비가 학부모들의 성화로 한껏 강화된 우리학교는 명분 없이 일찍 나가기 쉽지 않았다. 우선 군소리 없이 따라가는 것이 나쁘지 않을 듯했다. 우리는 학교의 오솔길을 따라 학교 건물로 들어섰다. 주 입구가 아닌 비상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섰다. 크림색의 철제 문을 여니 제법 어두운 복도가 들어서 있었다. 그리고 그 복도의 군데군데에는 크림색 문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런 곳은 학교에서 본 기억이 없었다. 각 문에는 화려한 영어 필기체로 무언가 적혀 있었으나 하도 구불구불하게 쓴 터라 지나치는 것만으로는 읽을 수가 없었다. 몇 걸음 지나지 않아 성후가 내 앞에서 멈춰섰다. 또 하나의 크림색 문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그 자리에 서 팻말을 읽으니 “*Mental Service*,” 심리 상담이라고 적혀 있었다. 퍼뜩 떠오른 것은, 이 곳은 정말 심리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아니라면 절대 들어가면 안되는 곳이었으며 들어갈 시 벌이 뒤따를 것이라는 기억이었다. 이 문들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아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정도면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방이라는 것은 확실했다.

“여기 들어가면 안되는 곳이잖아.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 여기 안에 상담 선생님도 계실걸.”

내가 설득의 투로 이야기했으나 성후는 귀담아 듣지 않는 듯했다.

“괜찮아, 안에 선생님은 내가 잘 알아.”

그 말을 끝으로 성후는 문고리를 돌려 밀었다. 그리고 나는 내 생애에서 다시는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다. 방의 구조는 조금 특이하다고 할 수 있었으나, 기본적인 틀은 보통 방들과 다른 바가 없었다.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것은 코너였으며, 그 코너 옆의 두 벽들은 모두 통유리였다. 정말 티 하나 없는, 말끔한 통유리였기에 그 너머의 풍경이 너무나도 생생이 다가왔다. 바다였다. 해변이 아니라, 정말 망망대해 그 위의 풍경이었다. 한쪽에선 짙은 푸른빛의, 다른 면에서는 청록색의 파도가 휘몰아쳐 만나 서로의 색이 섞여 스며들었다. 맑은 하늘 아래 바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하얀 거품이 푸른 바다와 이루 말할 수 없이 조화롭게 정경을 이루고 있었다. 학교 건물 안에 바다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을 만큼 숨막히게 아름다웠다. 한참동안 시선을 말 그대로 빼앗겨 감탄사만 연속해 내뿜은 후에야 방 안이 눈에 들어왔다. 회색에 푸른빛이 조금 도는 푸근해 보이는 카페트가 깔려 있었으며 그레이 패브릭 소파 몇 개가 기억자로 배치되어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구도로 놓여 있었다. 그리고 맞은편 벽에는 카운터나 인포메이션 데스크처럼 꾸며져 있었으며 로투스같은 포장 과자들이 바구니 안에 가득 담겨 있었다. 그 너머에는 놀랍게도 내가 아는, 기숙사의 선생님이 얼굴에 초록색 팩을 한 채 웃으며 나를 반기고 있었다.

“우와...”

내 입에서는 그런 식의 감탄사 외에는 나오지 않았다. 내 자신이 답답했지만, 이게 무엇이냐라던가 어째서 학교 안에 이런 시설이 있으며 학생들이 왜 출입할 수 없는지라는 질문들은 애초에 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 채광과 바다의 풍경에 마음과 넋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성후는 그 옆에서 보람찬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로투스 과자의 포장지를 뜯어 나에게 건넸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받아들어 입속으로 직행했다. 꿈이라면 천 번이고 다시금 꾸고 싶은 꿈이었다.

“이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성후는 웃으며 고개를 가만히 끄덕였다. 난 패브릭 소파 중 파도가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 생각을 시작했으나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 대답했다.

“고마워, 이건 진짜 평생 잊지 못할 풍경인 것 같아.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다워.”

내 어휘력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한탄스러울 지경이었다. 다른 형용사가, 이 풍경을 담아낼 수 있는 형용사가 있지만 하다면 무엇이든 뱉어내고 싶었으나 ‘아름답다’ 한 단어만 떠올랐다. 성후는 그런 내 모습을 웃기다고 생각했는지 계속 웃기만 했다.

“근데 왜...?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니까 여기 데려오고 싶어진 거야? 하하-”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다. 최근래 중 가장 좋았다. 아니, 인생 통틀어서 가장 좋았으려나...

“그냥.”

성후는 그것을 대답으로 삼았다. 그 순간, 저 멀리서 엄청나게 커다란 파도가 밀려오는 것이 보였다. 넋 놓고 바라보던 도중, 파도가 가까워졌고 유리창 아래에서 부서졌다. 그리고 우리가 있던 방은 말 그대로 크게 들썩였다. 마치 파도 위의 배처럼,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움직였다. 성후는 일어나 앉아 있던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가자, 우리가 나갈 차례라는 뜻이야.”

나는 헛갈린다는 표정으로 성후를 바라보다 성후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있게 나를 일으켜 주고는, 우린 크림색 철제 문을 다시 나섰다. 나서기 전, 난 이젠 초록색 팩을 떼 선생님께 방긋 웃는 것으로 인사를 마치고 뒤돌았다. 나가기 직전까지도 그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으려 온갖 힘을 쓰며 몇번이고 뒤돌아보았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철제 문을 닫으니, 호텔 복도같은 풍경이 다시 내 시야를 채웠다.

“나중에 다시 올 수 있을까...?”

내가 희망과 설렘에 차 물었다. 성후는 그저 웃고는 다시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 한번 더 물으려 했지만 고의로 대답하지 않은 것을 알아챈 나는 입을 다물고 한 번 본 것에 만족하자며 따라 걸었다. 소리가 울리는 비상계단을 내려가, 다시 일 층에 도착하니 늦여름의 후덥지근한 공기가 나를 덮쳤다. 이상했다. 온갖 이상한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니 덜 이상한 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다. 성후는 계속해서 앞장서 걸었다.

“성후야!”

내가 소리내어 불렀고, 성후는 뒤를 돌아보았다. 무언가 모르게 성후가 떠나버릴 것 같은 기분이었다. 원래도 없던 존재였던 것처럼,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가면 성후라는 존재는 없어질 것 같았다. 고작 몇십 분의 기억이 이토록 성후의 존재를 내 속에 질게 물들게 하다니, 이것 또한 이상했다. 그리고 그 후 나의 행동이 가장 이상했던 것 같다. 난 그대로 성후에게 안겼다. 왜 그랬냐고 묻는다면, 평생 알 수 없을 것이다. 안아준다면 성후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지도 않았고, 성후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 함께했으며, 고마움 때문이라기엔 바다의 풍경에 그 이전의 일은 모두 잊은 채였고,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라기에는 마음이 불안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 순간, 그러고 싶었다. 마치 성후가 쓰러져 있던 날 업어준 이유처럼, 그냥. 그냥 그 순간 성후를 안아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성후가 날 안아주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냥 내가 성후에게 팔을 두른 것과, 한층 깊은 파스함만 기억나기에.

팔을 떼는 그 순간 얼굴뿐만 아니라 귀까지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부끄러웠다. 하지만 성후는 그렇지 않은지, 이걸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파스하게 웃은 뒤 나를 다시 이끌었다. 부끄러움에 영원같은 몇 분을 걸은 뒤 우리는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 도착해 있었다. 나는 또 헛갈리는 눈빛을 한 채 성후를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성후는 처음으로 조금 아쉽다는 표정을 지었다.

“왜...그런 표정을 짓는 거야?”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으나 성후의 표정에는 달라짐이 없었다.

“조심해서 가. 쓰러지지 말고.”

“어...?”

그것이 내가 들은 성후의 마지막 말이었다. 성후는 내 왼쪽 어깨를 부드럽게 살짝 오른쪽으로 밀었고, 난 저항할 힘도 없이 내 머리가, 그 다음은 내 머리가 오른쪽으로 기우는 것을 느끼며 성후의 얼굴을

읽으려 했다. 여전히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다음 순간부터는 머리의 아득함과 눈앞의 어둠만이 기억난다.

*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몸은 그 자리 그대로에 누워 있었다. 다른 점이라 한다면 성후 대신 내 친구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었다.

“초아야 너 괜찮아?”

“보건실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업힐ㄹ-”

“어?”

마지막 친구의 말에 반응하고 말았다. 업힌다-라. 성후의 기억으로 짝 차 버린 머리가 한심하기도 했으나 워낙 강렬한 기억이라 그런 것이라며 내 자신을 다독였다. 친구들은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나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묻자, 한 친구가 대답했다.

“우리 다같이 체육 끝나고 걸어가는데, 너가 계속 졸립다 하더니 갑자기 이쪽으로 픽 쓰러졌잖아!”

친구는 손가락으로 오른쪽을 가리키며 잔뜩 흥분한 채 말했다.

“어? 나 혼자 간 게 아니라 우리 다같이 갔다고?”

내가 다시 물었다.

“너 진짜.... 우리 다같이 가고 있었잖아, 그 옆반 선생님 이야기하면서!”

들을수록 내 기억과 너무나 달라 점점 헷갈리기만 하는 기분이었다.

“옆반 선생님...?”

내가 계속 되묻자 친구들은 한숨을 쉰 채 나를 일으켜 주었다. 내가 괜찮냐고 계속 몇 번 묻더니, 내가 끈질기게 괜찮다고 하자 모두 나중에 양호실에 가보라는 말만 남긴 채 다른 이야기 주제로 넘어갔다. 나도 끼여 보려 했지만, 성후의 생각에 낄 수가 없었다.

“애들아, 우리 학년에 김성후라는 애 알아?”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김성후? 개 한 제제작년에 나간 앤데, 작년에 학교 전학온 너가 개 어떻게 알아?”

한 명이 대답했다. 만약 2년 전 나간 아이가 내 꿈 속에 나왔다고 주장한다면, 제 3자의 입장인 친구들은 전혀 믿지 못할 것이다. 나라도 그럴 것이다. 다시 학교에 들어온 것은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렇다면 다른 아이들 모두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 신입생은 없다고 들은 것 같았다.

늦여름의 이상한, 고작 몇 분의 꿈이 몇 년동안 성후를 찾아다니게 할 줄은 몰랐다. 비상계단도, 크림색 철제 문들도, 아무것도 없었다. 매점의 아주머니는 내가 다녀간 적 없다고 했으며 성후의 인상착의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성후는 졸업때까지 볼 수 없었지만 유리 넘어 바다의 그 풍경은, 오늘로써 정확히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